

# KIA 장타 갈증 '좌' 진두 '우' 우성이 푼다

## 박진두

2014년 입단...윌리엄스 감독 기대주 전역 후 마무리 캠프서 내년 준비 파워 히터 정평...수비 약점 보완

이우성과 박진두가 장타 고민에 빠진 KIA 타이거즈의 희망이 될까? KIA는 팀 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인 윌리엄스 감독을 앞세워 2020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직접 마무리캠프를 지휘하며 선수단 큰 틀을 그렸다. 새 출발선에 선 KIA가 채워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장타'다. KIA는 올 시즌 76개로 팀홈런 최하위를 기록했다. 확실하게 흐름을 기울일 수 있는 '한방'은 시즌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거포 외국인 타자 영입 방안도 고려됐지만 KIA는 검증된 터커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마무리캠프 기간 장타갈증을 풀어줄 '셋발'을 찾는데 집중했다. 또 송지만과 최희섭 코치를 새로 영입해 우타자와 좌타자 전담 지도를 맡겼다.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이는 '우타자' 이우성과 '좌타자' 박진두다. 캠프 기간 성장세를 보인 두 사람은 마지막 연습경기에서는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 올리기도 했다. 시즌 중반 이명기와의 트레이드로 NC에서 건너온 이우성은 KIA가 '우타 거포' 재목으로 선택한 선수다. 그는 올 시즌 6개 홈런 중 5개를 챔피언스



박진두

필드에서 기록하며, 홈팬들에게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우성은 이번 캠프에서 '단순함'을 배웠다. 이우성은 "간단히 생각을 하게 됐다. 예전에는 생각도 많고 다 잘 치려고만 했는데 코치님들이 '잘 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시합 때 내가 잘 칠 수 있는 곳만 노렸다. 잘 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점 대신 자신의 장점을 집중하면서 확률을 높였다.



이우성

이우성은 "예전에는 변화구에 많이 속았다. 지금은 잘 칠 수 있는 곳을 벗어나면 최대한 안 치려고 한다. 여자피 쳐봤자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달라진 수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북귀 시즌을 앞둔 박진두도 윌리엄스 감독이 주목하는 '파워히터'다. 진흥고를 졸업하고 2014년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아직 1군 기록이 없다. 하지만 입단 때부터 '힘'으로는 소문이 자자했다. 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 이우성

올 시즌 중반 NC서 트레이드 챔피언스 홈런 5개...팬들에 파워 입증 홈런 욕심 버리고 수싸움 기술 연마

하고 돌아온 박진두는 이번 캠프에서 북귀 시즌을 준비했다. 박진두는 "마무리캠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엄청 힘든 훈련 이런 것인데 그런 것과 정반대였다. 왜 이렇게 시키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하게 되더라"며 "캠프에서 수비에 가장 신경을 썼다. 타격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이클이 있지만 수비는 언제나 잘해야 한다. 수비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수비 약점 보완을 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역시 박진두의 가장 큰 매력은 힘이다. 박진두는 이번 캠프에서 힘을 빼면서 힘을 키웠다. 박진두는 "홈런 욕심은 버렸다. 여자피 힘은 있으니까 공만 맞힌다는 식으로 했다. 코치님도 '선구안과 컨택을 신경 쓰고 멀리 치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힘이 있으니까 맞으면 공은 알아서 나간다고 하셨다"며 "잘 치는 타자들 보면 힘 들어서 치는 게 아니다. 포인트로 맞으면 공은 알아서 나가는 것이다. 올 시즌 동기인 (박)찬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다.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선수가 뽑은 최고선수는?

프로야구선수협, 내달 2일 플레이어 초이스 어워드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뽑는 '최고의 선수'가 내달 2일 가려진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이대호)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두 배홀에서 2019 플레이어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을 연다. 플레이어 초이스 어워드는 KBO리그 현역 선수들이 직접 선정하는 상으로 2013년에 제정, 올해 일곱 번째 수상자가 가려진다. 플레이어 초이스 어워드는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야수상, 올해의 투수상, 신인선수상, 재기선수상, 기량발전선수상, 스타플레이어상, 퓨처스 선수상(팀당 1명·총 10명) 등 총 8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올해의 선수상'은 리그 성적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안팎에서 프로선수다운 모습을 보인 박석민(NC)에게 돌아간다. 선정위원회는 구단별 퓨처스 선수상 주인공도 선정했다. KIA 투수 강이준과 함께 박종기(두산), 김은성(키움), 최준우(SK), 강정현(LG), 서호철(NC), 이상동(KT), 박용민(삼성), 문동욱(한화), 최하늘(롯데)이 시상대에 오른다. 올해의 야수상, 투수상, 신인상, 재기선수상, 기량발전선수상 수상자는 2일 시상식 개최 전에 현장 투표로 결정된다. 스타플레이어상은 넷마블 마구마구의 게임 유저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세계 1위 vs 국내 1위 ... 경주서 진검승부



고진영

29일부터 챔피언스 트로피...LPGA-KLPGA 선수들 12명씩 맞대결 해외파에 고진영·이정은·김효주...국내파에 최혜진·장하나 등 화려

2019년 여자프로골프를 주름잡았던 선수들이 팀을 이뤄 29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격돌한다. 경주 블루윈디아너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오랜 자리아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한국·교포 선수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선수들이 12명씩 맞붙는 단제전이다. 해외파로 구성된 팀 LPGA에는 박인비를 비롯



최혜진

해 LPGA 올해의 선수 고진영,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신인왕 이정은, 김효주, 교포 선수 다니엘 강, 리디아 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파로 구성된 팀 KLPGA에는 올해 대상과 상금왕 등 6관왕에 오른 최혜진, 장하나, 이다연, 박채운, 조아연, 조정민 등이 출격한다. 대회 첫날인 29일에는 한팀 2명의 선수가 각각 플레이어인 뒤 좋은 성적을 적어내는 포볼 매치, 30일에는 한팀 두 명의 선수가 번갈아 샷을 하는 포섬 매치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각팀 12명의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는 싱글 매치플레이어가 열린다. 승리하면 1점, 무승부이면 0.5점을 부여해 사흘간 많은 점수를 쌓은 팀이 우승한다. 우승팀 상금은 7억원, 준우승팀 상금은 5억원이다. /연합뉴스

## 기성용은 왜 안보이나

뉴캐슬 6경기 이상 결장...거취 관심

기성용(30·뉴캐슬 유나이티드)이 6경기 연속 결장하면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성용은 26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애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스완지 시티에서 뉴캐슬로 이적했다. 2018-2019 시즌 동안 19경기(선발 15경기)를 뛰고, 뉴캐슬의 시즌 첫 승을 이끌어낸 아요세 페레스의 골에 도움을 주며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사임, 스티브 브루스가 후임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브루스 감독이 올 시즌 기성용을 그라운드에 내보낸 것은 3차례 뿐이다. 결장이 길어지자 기성용이 이적 시장에 나올 것 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풋볼인사이드'는 지난 24일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브루스 감독의 의향을 타진한 뒤 오는 1월 기성용을 팔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성용은 현재 해외 구단 2-3곳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캐슬과의 계약은 오는 2020년 6월 만료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페더러 경기 구름 관중

멕시코 시범경기 관중 4만2517명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와 알렉산더 조네레프(7위·독일)가 멕시코에서 벌인 시범 경기에 테니스 사상 최다 관중인 4만2000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6일(한국시간) "지난 주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페더러와 조네레프의 시범 경기에 4만2517명의 관중이 입장했다"며 "이는 종전 기록인 2010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리나 윌리엄스와 킴 클레이스터스 경기 3만5681명을 뛰어넘는 테니스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페더러가 조네레프를 2-1(3-6 6-4 6-2)로 제압했다. ESPN은 "2020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의 이번 트 경기에서 최다 관중 기록이 경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페더러와 나달의 경기가 열리는 케이프타운 스타디움의 수용 규모는 5만5000명에 이른다. /연합뉴스